분양권 프리미엄 노린 주민·투기꾼 '북새통'… 몸싸움까지

수완지구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이상 과열 왜?

프리미엄 1000만원 소문에 한탕 심리 확산
가족 동원 새벽부터 줄서기
업체측 홍보 인력 동원 '뒷말'
'떳다방' 손님 확보 신경전도

광주 수완지구 한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분양을 둘러싼 투자 열기 과열로 신청자들간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해당 건설사는 지난 21일 쌍촌동에 모델하우스를 열고 지난 24일까지 사흘간 20~23평형 4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228세대 분양 대상자를 모집했다. 주택법상 청약자격이 따로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탓에 신청자들 사이에서 '선착순'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를 받았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모델하우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업체측이 분양 홍보를 위해 인력을 동원했다는 말도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나돌았다.

업체측은 4일간 접수한 신청자만 8664명으로 38대 1이라고 밝혔다. 수완지구 내 공동주택 단지나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가 더 이상 들어서지 않는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하지만 투기 열기가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분양 전부터 일대 공인 중개사들 사이에서는 "분양권만 가져와라. 1000만원 프리미엄 얹어 사겠다"는 말이 떠돌았다. 실수요자 외에 '단 시간에 거액을 챙길 수 있다'는 투자 심리가 확산, 가족들을 동원해 분양권 확보에 나선 주민들도 생겨났다.

자칫 접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일가족이 총동원돼 오전 7시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물량을 가급적 많이 확보했다가 분양권 가격을 부풀린 뒤 수요자에게 되팔려는 '떳다방'도 출몰했다. 업자들은 기간 내내 신청서를 접수하려고 줄 선 신청자들 틈을 돌아다니며 "분양권 받으면 직접 사실 거예요?, 1층이어도 P(프리미엄) 300만원 쳐줄게. 받으면 나한테 넘겨요." 라며 분양권 확보에 나섰고 서로 "내 손님"이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업체측이 청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짜리 수표를 갖고 오는 경우에만 모델하우스 입장을 허용하는 일까지 생겨났다. 대기 시간이 길어 모델하우스로 입장하지 못한 신청자들에게 우선 입장권을 나눠주기도 했다.

폭력 사태도 발생했다. 서부경찰에 따르면 A(35)씨는 지난 24일 낮 12시께 청약금 명목으로 10만원짜리 수표로 200만원을 들고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려다 100만원 짜리 수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업체 직원과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업체측은 "평일에는 은행이 문을 열어 현금도 받았지만 주말에는 힘들어 백만원짜리 수표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인사반발' 불쾌한 광주교육감

5급 승진 탈락자들 연대서명
초유의 항명사태…처리 주목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5급 승진 탈락자들의 집단반발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간부를 꿈꾸는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항해 연대서명을 하는 등 초유의 항명 사태를 벌였다는 점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되고 있다.

장 교육감은 25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교육행정직 5급 사무관 승진 탈락자들의 집단 연대서명에 대해 "매우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장 교육감은 "승진인사 절차는 여러 사람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삼진아웃'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위해 두 번의 응시기회를 더 줬는데도 자신들이 승진에서 누락됐다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회의 끝에 나온 장 교육감의 이날 발언은 평소 부하직원들의 잘못을 공식석상에서 꾸짖는 스타일이 아닌 점을 볼 때 매우 이례적이어서 연대서명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교육감 고유권한인 인사에 대해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한 것은 일종의 '항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강한 징계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엄중 징계로써 '레임덕'이나 '조직장악 실패'와 같은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다문화 한마음 축제 25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 북구다문화가족원센터에서 광주시 주최로 열린 '다문화 한마음 축제' 참가자들이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우유주사' 연예인들 집유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장미인애(29)씨와 이승연(45), 박시연(본명 박미선·34)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장씨와 이씨, 박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씨에게는 550만원, 이씨는 405만원, 박씨는 370만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의원 '갬코 사기극' 발언 고소전 비화

광주시의회 홍인화 의원의 '갬코(한·미 합작투자사업 법인명) 사기극' 발언이 고소 전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로부터 최근 검찰에 배임혐의로 고발당한 양모씨가 25일 홍인화 광주시의원과 '참여자치 21'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수사기록 공문서 취득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양씨는 "검찰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의 증거기록 등을 토대로 홍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실명까지 거론한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소하게 됐다"며 "참여자치 21의 경우는 검찰이 법원에 증거기록으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이를 왜곡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또한, 참여자치 21이 양씨와 함께 고발한 강모씨와 박모씨도 조만간 '참여자치 21'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갬코'사업이 또다시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운동권이라 불러 죄송"

전남대 경영학부학생회 선거 후보
상대 후보 '폄훼 유인물' 공개 사과

전남대 경영학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이른바 운동권 출신인 상대후보를 폄훼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공식 사과했다. 대학 단과대 회장을 뽑는 선거마저도 기성 정치권에 버금가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벌어진데다, 현 정치권의 편가르기 세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씁쓸한 반응도 적지 않다.

25일 전남대 등에 따르면 전남대 경영학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A(25) 후보는 지난 21일 경영대학 1층 알림판에 공개 사과문을 게시했다.

공개 사과문에는 "'운동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받아들이는(상대방의) 입장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운동권이라는 표현으로 한대련(한국대학생연합), 광·전대련(광주·전남대학생연합), 현 총학생회 및 학내 단체를 하나로 묶어 학우들을 편갈랐던 표현이 잘못됐음을 사과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A후보가 배포한 유인물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대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A후보는 "우리는 비운동권을 지향한다. 기업에서 '전남대 총학생회는 운동권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는데,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냐"라는 내용 등이 담긴 유인물을 뿌린 게 화근이 됐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즉각 반발했다. "운동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마치 '운동권은 나쁘다'라는 식의 표현은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전남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선관위는 논의 끝에 유인물 회수 및 공개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다.

전남대 경영학과 정모(24)씨는 "상대 후보를 비방해서라도 한자리 차지하려는 기성 정치권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면서 "지성인다운 선거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외상장부 훔치고 경찰서 간 사연

쌍나팔

○…3000만원의 외상값을 받기 위해 광주로 온 부산 무역상인이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의 외상 장부를 가져갔다가 경찰서행.

○…2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36·부산)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A병원 4층에서 박모(41)씨가 병실에 놔둔 외상장부 4권을 훔쳤다는 것.

○…과일을 수입해 전국에 납품하는 이씨는 2년 동안 1000만원 상당의 물건 납품 대금을 갚지 않은 박모(53)씨를 찾아 병원에 왔다가 동명이인인 다른 박씨의 외상 장부를 들고 나왔다가 경찰에 덜미.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